

서정주 『질마재 신화』에 미친 『삼국유사』의 영향에 대하여 - ‘신이(神異)’ 개념의 문학적 변용 문제를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 on Seo Jeong-ju's Myth of Jillmajae :
Focusing on The Literary Transformation Problem of The Concept of Divinity

저자 (Authors) 윤재웅
Yun, Jae-Woong

출처 (Source) [한국시학연구 \(62\)](#), 2020.5, 135-163(29 pages)
[The Korean Poetics Studies \(62\)](#), 2020.5, 135-163(29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시학회](#)
The Korean Poetics Studies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49549>

APA Style 윤재웅 (2020). 서정주 『질마재 신화』에 미친 『삼국유사』의 영향에 대하여 - ‘신이(神異)’ 개념의 문학적 변용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62\)](#), 135-16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3/16 13:5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서정주 『질마재 신화』에 미친 『삼국유사』의 영향에 대하여

— ‘신이(神異)’ 개념의 문학적 변용 문제를 중심으로

윤재웅*

차례

- I. 머리말
- II. 고향 서사의 출발
- III. ‘대안사서(代案史書)’와 ‘대안미학(代案美學)’
- IV. 신이(神異)의 발현 양상
- 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서정주의 『질마재 신화』가 『삼국유사』의 ‘신이(神異)’ 성격을 원리로 하여 창작되었음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신이는 ‘신기하고 괴이한 이야기’라는 의미 외에 ‘평범한 사람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신성(신명) 발현’의 뜻도 있음을 주목하고 두 텍스트에 나타나는 사례들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신이는 성과 속, 지옥과 열반 등과 같은 양 극단의 경계가 무너지는

*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불교의 불이론(不二論) 경지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미당의 젊은 시절의 주요 경험이었던 ‘현실 밑바닥 참여’나 노자로부터 배운 ‘화광동진’과도 유사함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이’의 문학적 변용을 ‘불이(不二)’와 ‘역설(paradox)’로 정리하였다.

『질마재 신화』의 인물들은 대부분 가난하지만 가난을 전경화하거나 체제 모순에 대한 고발 같은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으로 형상화되지 않는다. 질마재의 인물들은 미천한 사람도 성스럽다는, 『삼국유사』 속 인물들과 같은 ‘신라-질마재’ 종족으로 형상화된다. 종교적으로 보면 미천한 하층민의 삶도 빛날 수 있다는 ‘중생 구제’의 불교철학이 녹아 있는 경우이고, 문화적으로 보면 『삼국유사』의 신이담을 승계한 ‘문화 원형의 재현’이며, 문학적으로 보면 ‘역설의 미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드는 스토리텔링이다.

I. 머리말

서정주가 ‘신라정신’을 탐구하여 자신의 문학세계에 반영했다는 점은 두루 알려져 있다.¹⁾ 또한 ‘신라정신’의 중요한 진원지로서의 『삼국유사』에 대한 논급은 서정주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연구자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다.²⁾ 이들 논의는 『삼국유사』 서술의 본질적 측면과 『질마재 신

1) 서정주, 「내 시정신의 현황」, 『문학춘추』, 1964.7. 「내가 아는 영원성」, 『현대시학』, 1974.10. 참조.

2) ‘신라정신’ 진원지로서의 『삼국유사』와 『질마재 신화』의 관계를 흥미롭게 연구한 대표적인 사례는 유중호와 조은정이다. 유중호는 『질마재 신화』를 ‘질마재 유사(遺事)’로, 조은정은 ‘미당 유사(遺事)’로 바라보았다. “신라시편들은 구체적 경험을 상상력과 서지적(書誌的) 참조와 자의적 해석이 대체하고 있는데 바로 그 때문에 모호한 신비화로 빠져들고 그만큼 지상적인 삶의 실감과는 멀어져 있다. 같은 부족 방언 마술사의 숨씨임에도 신라시편과 질마재 시편 사이에서 발견되는 거리와 낙차는 현실 관찰과 경험 그리고 자의식 구축 사이의 거리와 낙차라고 생각된다. 자의적, 상상적 구축에서는 신(神)도 거기에 깃들여 있다는 세목이 얼마

화』와의 구체적 상관관계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완된 논의를 기대하게 한다.³⁾

이 글은 서정주의 『질마재 신화』(1975)에 미친 『삼국유사』의 영향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질마재 신화』가 시인의 고향마을 이야기인 ‘전라도 고창 질마재 마을 풍속사’를 다루는 ‘지역문화’가 아니라, 『삼국유사』 세계관의 현대적 변용이라는 ‘전통의 계승과 창달 문학’이라는 관점을 중시한다. 『삼국유사』의 세계관은 ‘신이(神異)’를 중시하는 대안(代案)역사관이다.⁴⁾ 이 글은 대안역사로서의 ‘신이’가 『질마재 신화』의 미학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본다. 신이는 ‘신기하고 괴이한 이야기’라는 표면적 의미만을 가지지 않는다. 신이의 핵심 개념은 ‘평범한 사람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신성(神明)의 발현’이다. 윌리나 이치적으로는

좀 허황한 것으로 드러난다. 그것은 신라정신이라는 약점을 압도하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산문적인 지칭으로서는 『신라초』야말로 ‘서라벌 신화’라고 해야 할 것이다. 거짓의 함의가 있는 신화란 말이 거기 어울린다면 『질마재 신화』는 일연의 어법을 따른 ‘질마재 유사(遺事)’가 더 어울릴 것이다.”(유종호, 「서라벌과 질마재 사이」, 『서정적 진실을 찾아서』, 민음사, 2001, 166쪽 참조), “『新羅』가 문헌설화를 수용하여 시로 압축한 시기라면 『질마재 神話』는 압축된 ‘신라정신’을 그만의 독창적인 설화로 풀어내는 시기이다. 그는 아득한 신라 시대 대신 현대의 질마재를 배경으로 삼고, 신비로운 행적으로 위대함을 보인 인물이 아닌, 잘난 것 없는 평범한 이웃들을 주인공으로 삼는다. 『질마재 神話』는 그가 처음 ‘신라정신’을 발견했던 『三國遺事』의 풍부한 세계를 회복하고 자기만의 신라, 자기만의 ‘遺事’를 창조해내려는 시도이다.”(조은정, 「『삼국유사』의 시적 수용과 ‘미당유사’의 창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71쪽 참조) 유종호는 ‘질마재’라는 장소성을, 조은정은 ‘미당’이라는 예술가의 독창적 브랜드를 강조한다. 본고는 『질마재 신화』 속 인물과 삶에 대한 시인의 이해 방식이 『삼국유사』의 ‘신이 담론’의 특성을 승계했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 3) 서정주 자신은 ‘신라정신’에서 ‘영통’과 ‘훈교’를 주요한 본질로 보았지만, 이는 일연의 역사관의 본질은 아니다. 일연이 『삼국유사』를 통해 뼈대를 세운 우리 민족의 신이사관(神異史觀)은 성과 속이 둘이 아니라는 불교의 ‘불이론(不二論)’을 삶 속에 적용하여 민중들 내면의 잠재력을 불러일으키려는 국가 차원의 의식혁명 운동이다. 영통과 훈교는 신이의 하위 개념이다.
- 4) 『삼국유사』의 세계관을 ‘신이(神異)’로 접근하는 방법은 조동일의 견해를 참조했다. 조동일, 「『삼국유사』의 기본 특징 비교 고찰」, 『일연선사사 삼국유사』(일연학 연구원 국제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06, 13-44쪽 참조.

성스러움과 속됨, 생사와 열반 등과 같은 양 극단의 경계가 무너지는 불교의 불이론(不二論) 경지와 비슷하다.

역사의 흐름을 신이로 보는 ‘신이사관(神異史觀)’은 신과 영웅과 왕권 중심의 중세 질서에 새로운 정치·종교적 담론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민중민주주의의 보편화’로 부를 만하다. 이는 고타마 싯다르타가 일찍이 꿈꾸었던 세계이며 몽골의 침략에 시달리던 고려 말엽의 상황이 요구하던 시대정신이기도 하다.

『삼국유사』는 ‘민중이 중심이 되는 민족지(民族誌)의 다양한 사례집’으로 부를 만하다. 미천한 계집종(옥면), 하층민 신기료 장수(광덕), 화전민(엄장) 등이 불성(佛性)을 발현하여 보살이 되는 세상이 펼쳐진다. 이러한 방식이 『질마재 신화』에도 적용된다. 『질마재 신화』의 인물들은 피폐한 농촌마을에서 공상을 체현하는 캐릭터라기보다 신명(神明)의 혈족 정체성을 지닌 후예들로 현대를 살아간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대 체제의 모순에 대한 고발이나 저항이 아니다. 시인은 이들에게서 ‘밑바닥 삶’을 성스럽게 만드는 사유의 전회를 부각시킨다. ‘역사의 예술화’⁵⁾가 반드시 퇴행적이지는 않다. 역사를 초월하는 보편성을 발견하면 퇴행과 진보의 구별이 무화되는(퇴행이 곧 진보라는) 역설의 미학을 보여줄 수 있다.

『질마재 신화』는 하층민의 속된 삶에서 성스러움을 발견하는 『삼국유사』의 이야기문법을 옮겨온다. 질마재를 신라와 등치시키는 이런 방식을 ‘역사의 은유화’⁶⁾라 한다. 신라와 현재를 함께 보는 방식이다. ‘역사 은유

5) 김윤식, 「역사의 예술화」, 『현대문학』, 1963.10, 182-192쪽 참조. 이 개념은 미당의 ‘신라정신’을 비판하기 위한 맥락에서 사용된다. 김윤식은 『삼국유사』를 역사와 시가 미분화된 상태의 기술물로 보았다. 이런 세계에서는 서술자의 허구적 상상력이 풍요롭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와 시가 분절되지 않는다. 서정주의 『신라초』(1961)에 대한 비평인데, 선덕여왕이나 처용에 대한 몇 조각의 작은 정보를 가지고 시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역사에 허구적 상상력을 입히는 미당의 방식을 공격한다. 그 공격의 주요 지점은 ‘현대의 불안을 스스로 대결하지 못하고 과거 속으로 도피하려는 욕망’이다. 그러므로 ‘역사의 예술화’는 과거로의 퇴행 개념이다. 이 개념이 『질마재 신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마재 신화』에는 ‘역사의 예술화’ 과정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의 은유화’ 과정도 있다.

화’ 패턴 속의 인물들은 성격을 공유하기도 한다. 비판을 낙관으로, 고난을 승리로, 미천한 신분을 고귀한 신분으로 바라보는 불이(不二)와 역설의 관점이다. 이런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는 보다 포용적인 시각, 즉 이념 지향성을 보완하는 시각이 필요하다.⁷⁾

『삼국유사』와 『질마재 신화』는 무엇이 진정한 민중민족주의인가의 문제를 공유한다. 이 글은 『질마재 신화』의 인물들의 삶에서 『삼국유사』의 신이 속성을 살펴봄으로써 두 텍스트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질마재 신화』의 인물들이 전라도 고창이라는 공간성을 구현하는 인물들이 아니라 초시간적 연관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성을 구현하는 인물들임을 밝히고, 이 시집의 성격이 당대 현실을 비판하는 이념 서술보다는 민족의 원형적 속성을 살피려는 보편담론의 탐구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II. 고향 서사의 출발

『질마재 신화』(1975)의 기본 성격은 ‘고향 서사’이다. 고향에 대한 서정주의 각별한 관심은 이야기의 형식으로 재현되는데 그의 생애사를 일별해보면 194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산문을 통해 발표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무렵의 미당 산문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이며, 『질마재 신

6) ‘역사의 은유화’는 과거를 현재와 결합시키는 방식을 가리킨다. 여기에 대해서는 윤재웅, 『『질마재 신화』에 나타나는 ‘액션’ 미학』, 『한국어문학연구회』, 2013, 378-384쪽 참조.

7) 이런 점에서 유중호가 보여준 입장은 선도적이다. 그는 1970년 당대의 어느 민중문학보다 『질마재 신화』가 훨씬 더 민중문학의 본질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기층민에 대한 공감적 자세를 주조로 한 작품들이 편향된 시각이나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대로 그리지 못한 기층민의 실상을 시인이 『질마재 신화』를 통해 보충하고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인 사태이다.” 유중호, 『소리 지향과 산문 지향』, 『문학의 즐거움』(유중호 전집5), 민음사, 1995, 34쪽 참조.

화』와의 상관성도 검토되기 시작한다.⁸⁾ 서정주의 초기 산문을 일람하면 다음과 같다.

1	죽방잡초	동아일보	1935.8.31. / 1935.9.3.
2	필바라수초	동아일보	1935.10.30. / 1935.11.1. / 1935.11.3
3	고창기	동아일보	1936.2.4. / 1936.2.5.
4	배회	조선일보	1938.8.13.
5	랭보의 두개골	조선일보	1938.8.14.
6	칩거자의 수기	조선일보	1940.3.2. / 1940.3.5. / 1940.3.6.
7	나의 방랑기	인문평론	1940.3.
8	속 나의 방랑기	인문평론	1940.4.
9	만주일기	매일신보	1941.1.15.~1.21.
10	질마재 근동아화 ⁹⁾	매일신보	1942.5.13.~5.21.
11	향토산화 ¹⁰⁾	신시대	1942.7.
12	고향 이야기 ¹¹⁾	신시대	1942.8.

- 8) 최현식, 「질마재의 역사성과 장소성」, 『한국시학연구』 43호, 2015, 139-175쪽. 박옥순, 「서정주의 초기 기행시와 ‘신라-질마재’의 발견」, 『인문과학연구』 52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49-80쪽. 김봉재, 「『질마재 신화』에 나타난 탈근대적 성격」, 『한국문학연구』 52집, 2016, 41-79쪽. 최현식의 논문은 미당 초기의 산문을 질마재와 관련하여 언급한 초기 논문이며, 박옥순은 질마재 창작의 시공간적 기원이 1930년대 경주라는 점을 주목한 경우이다. 질마재에 배태된 신라정신과 고향의식의 연원이 19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 초반 무렵에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김봉재는 『질마재 신화』를 유년기 자서전인 『도깨비 난 마을 이야기』(1977)과 비교해서 검토하는데 사실 이 자서전의 원전은 1960년 세계일보에 연재된 「내 마음의 편력」이므로 70년대 산문이 아니라 60년대 산문이다. 유년기 자서전은 이른 시기의 고향 산문이 『질마재 신화』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검토하는 맥락에서 중요하다.
- 9) 「중운이와 가치, 「맛머누리와 근친, 「동채와 그의 처」 등 세 편의 산문이 수록되어 있다.
- 10) 「네 명의 소녀 있는 그림」(이 산문은 시집 『귀족도』(1948)에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로 수록된다.), 「씨름의 작은 삽화, 「객사 동대청에서 피리 불던 청년」 등 세 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청년 서정주의 자의식을 검토하는 데 중요하다. 『화사집』(1941) 연구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¹²⁾ 고향에 대한 탐구는 「만주일기」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해서 귀국 직후 본격적으로 시도된다.¹³⁾ 특별한 사람이나 인상적인 사건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질마재 신화』의 초기 형태로 볼 수 있다.

고향 이야기가 문학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는 사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광주학생운동 지지 시위로 중앙고보를 퇴학(1930)당한 후 방황하던 서정주는 고창고보와 중앙불교전문학교(1935) 등을 잠시 거쳤으나 공부에 마음을 붙이지 못한다. 등단(1936) 이후에도 방황이 계속되자 부친의 적극 개입으로 결혼(1938)하지만 마땅한 일거리도 없어 만주로 취직 하러 떠난다(1940). 하지만 만주에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변변한 자금 마련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온다(1941). 그의 젊은 날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다.

「질마재 근동야화」, 「향토산화」, 「고향 이야기」 등은 이러한 실패와 좌절의 직후에 시도된 대안 글쓰기로서 걱정된 『화사집』 이후의 변화상을 보여준다. 고대 그리스의 신화, 성서의 세계관, 니체 철학과 보들레르의 저주받은 시인의식의 영향을 받던 문학세계와의 결별은 시인의 거듭된 탄생으로 이어진다.

문학적 관심이 고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전통세계로의 정도, 향토정서로의 귀환 등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고향 서사에 대한 관심의 촉발이러

-
- 11) 「신 장수 소 생원」, 「선봉이네」 등 두 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상의 산문들의 특징은 기구한 삶을 살아가는 고향마을 사람들에 대한 기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서정주 초기 산문 자료는 『미당 서정주 전집』 8권(산문, 은행나무, 2017, 15-116 쪽 참조
 - 12) 「나의 방랑기」와 「속 나의 방랑기」를 제외하면 위의 초기 산문들 대부분이 참조되지 않고 있다.
 - 13) 「만주일기」의 주요 내용은 가난을 벗어나고자 떠난 고향의 가족에 대한 염려와 객지에서 성공 다짐이다. 그런 점에서 고향은 ‘흠으로 바람벽한’ 가난한 터전으로 환기된다.

는 점에서 『질마재 신화』의 기원에 해당한다는 게 본고의 관점이다. 고향에 대한 애착, 청년기의 방황을 품어 안아줄 미적 대안으로서의 ‘고향 사랑’ 의식이 후일 『질마재 신화』 탄생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거북이」(『춘추』, 1942.6)는 이 무렵에 쓴 유일한 시이다.¹⁴⁾ 이 작품이 서정주 문학세계에서 중요한 이유는 ‘획기적 전회’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거북이여 느릿느릿 물살을 저어
숨 고르게 조용히 갈고 가거라.
머언 데서 속삭이는 꺾속말처럼
물니랑에 내리는 봄의 꽃니풀,
발톱으로 헤치며 갔다 오너라.

오늘도 가슴속엔 불이 일어서
내사 얼굴이 모다 타도다.
기우는 햇살일래 기울어지며
나어린 한 마리의 풀베레같이
말없는 사지만이 떨리는도다.

거북이여.
구름 아래 푸르른 목을 내둘러,
장구를 쳐줄게 둥둥그리는
설장구를 쳐줄게, 거북이여.

먼 산에 보랏빛 은은히 어리이는
나와 나의 형제의 해 질 무렵엔,
그대 쇠먹은 목청이라도
두터운 갑옷 아래 흐르는 피의
오래인 오래인 소리 한마디만 외여라.

— 「거북이에게」¹⁵⁾ 전문

14) 1942년부터 해방까지, 친일작품 발표 시기에 함께 발표한 신작시는 이 한 편뿐이다. 「여름밤」, 「감꽃」(『조광』, 1942.7), 「귀족도」(『춘추』, 1943.10)는 개작 후 재수록한 작품이다.

『화사집』 시절의 ‘혈떡거리며 달려오던 병든 수캐’의 자의식은 조용히 숨 고르며 ‘물살을 저어 갈고 가는 거북이’의 이미지로 바뀐다. 거북이는 ‘끈질기고 유유하게 난세의 물결을 헤치고 살아 나가야 하는 표상’으로서 어지러운 시대를 견디게 하는 자기 치유의 이미지이다.

이 작품이 가지는 서정주 생애사에서의 미적 전회성의 의의는 그의 친일작품들과 대비될 때 더욱 잘 드러난다. 변열기의 격정을 잠재우고 새롭게 모색한 문학적 대안이 ‘돌아온 고향’에 관한 관심과 몰입이었다면, 11편의 친일작품(시 4편, 소설 1편, 산문 6편) 발표는 외적 환경으로 인한 수치스러운 이존책의 문학이었다.

『화사집』 이후 발표된 「문들레꽃」(『삼천리』, 1941.4), 「살구꽃 필 때」(『문장』, 1941.4), 「조금」(「간조」, 『춘추』, 1941.7)를 필두로 「질마재 근동 야화」(『매일신보』, 1942.5), 「향토산화」(『신시대』, 1942.7), 「고향 이야기」(『신시대』, 1942.8) 류의 고향 서사는 1944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그의 친일문학과 공존한다.

이러저러한 맥락에 대한 고려도 없이 친일 성향의 작품을 썼으면 무조건 죄악시하는 ‘적발 평가’의 문제를 우리 학계나 문화계가 광정한다면, 해방 직전의 서정주 문학에 대한 세심한 비교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다. 1940년대 초반 서정주의 고향 서사는 『화사집』의 몸부림치는 변열을 넘어 숨고르기를 하는 새로운 시적 탄생임과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의 패권적 질서를 수용하는 수치스러운 친일문학과 공존한 ‘모국어 최후의 저항 서사’¹⁵⁾이기도 했다.

「거북이에게」는 서구의 휴머니즘에서 동양사상 또는 신라주의로 돌아오는 길목 입구의 안내판이다. 이러한 정신의 귀환이 구체적 형태로 탐구되었던 담론이 바로 ‘고향 서사’이다. 거북이가 느릿느릿 물이랑을 헤치

15) 첫 발표 제목은 「거북이」, 지면은 『춘추』(1942.6)였다. 위 텍스트는 『미당 서정주 전집』 1권(시), 은행나무, 2015, 72-73쪽.

16) 1942년에 집중적으로 발표된 산문의 특성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또 다른 과제로 남겨둔다.

며 난세를 견디어 나가듯, 서정주는 숨 가쁜 방황과 탈향의 세계를 정리하면서 고향 서사를 통해 『화사집』의 세계와 비로소 결별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1940년대 초반 서정주의 고향 서사는 결별의 서사인 동시에 회귀의 서사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드디어는 도조 히데키 정권은 독일 히틀러의 나치스 정권과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과 삼각동맹을 맺으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젊은이들은 일본에 충성을 다하는 일본 군인으로서 병역 의무를 지킬 것과, 병역 연령을 넘어서 청장년들은 전쟁터나 군수생산의 일꾼으로 징용한다는 명령이 내려졌고, 방년의 처녀들은 잡아들여서 전쟁터로 압송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판국이 되매 내 인생관과 시 정신에도 암암리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으니, 요점을 간단히 말하면 ‘거북이처럼 끈질기고 유유하게 이 난세의 물결을 헤치고 살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아울러서 이조 백자의 빛과 모양의 새삼스런 발견도 나의 이때의 마음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 그 한정 없는 체념 속의 달관의 빛과 모습의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판 글에서 자세히 표현한 적이 있기에 여기서는 생략하거니와, 이것 역시 내가 또 다시 돌아오게 된 노자나 장자 등의 동양 사상과 아울러 아주 중요한 마음의 양식이 되었다. 여기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한 것은 노자의 『도덕경』 등은 이미 전문학교 때 배운 교과서의 일종이기도 했었으니 말이다.

이렇게 해서 나의 동양 사상에의 회귀는 1945년의 해방 뒤에도 한동안 내 인생관과 시정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으니, 가령 1947년 가을에야 새로 쓴 「국화 옆에서」 같은 작품에서도 독자들은 그것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건 없을 것이다.¹⁷⁾

사상적으로는 동양으로, 공간적으로는 고향으로 회귀하는 지점에서 탐구되던 결정적 이미지 중의 하나는 ‘꽃’이다.

17) 서정주, 「나의 문학인생 7장」, 『미당 서정주 전집』 11권(산문), 은행나무, 2017, 77-78쪽.

가신 이들의 혈떡이든 숨결로
곱게 곱게 씻기운 꽃이 피었다.

흐트러진 머리털 그냥 그대로,
그 몸짓 그 음성 그냥 그대로,
옛사람의 노래는 여기 있어라.

— 「꽃」 중에서¹⁸⁾

『민심』(1945.11)에 발표된 「꽃」은 동양 및 고향 회귀의 결정판이라 볼 수 있다. 꽃은 곧 옛사람의 숨결이요, 머리털이요, 음성이요, 노래이다. 우리가 쉬어가야 할 곳은 ‘크낙한 꽃 그늘’이므로 곧 우리가 선인들과 하나가 되는 ‘역사 은유화’ 과정으로 들어간다. “선인들의 무형화된 녀의 세계에 접촉”¹⁹⁾하려는 시도는 곧 고향마을의 민속을 바탕으로 한 산문 「네 명의 소녀 있는 그림」의 일반화 과정이기도 하다.²⁰⁾ 그러므로 그의 고향 서사에서 중요한 것은 질마재라는 특정 공간의 성격 외에, 선인들의 삶의 방식 중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모습의 재현이다. 이 글은 그 재현 양상을 『삼국유사』의 ‘신이’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18) 서정주, 『미당 서정주 전집』 1권(시), 은행나무, 2015, 75쪽.

19) 서정주, 『흑석동 시대』, 『서정주 문학전집』 3권, 일지사, 1972, 228쪽.

20) 『귀족도』(1948)에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로 수록되는 이 산문은 질마재 마을의 유년 체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기 치유와 재생의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꽃을 가슴에 문질러 죽은 소녀 ‘월이’를 살려내는 정도령 이야기를 차용하는 형식이지만, 실은 죽은 소녀들을 그리워하는 소녀의 병증을 스스로 치유하고자 하는 갱생의 서사이다. 이 서사 속에 ‘신이’의 성격이 배태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네 명의 소녀 있는 그림」(1942)부터 「꽃」(1945)에 이르는 동안, 고향 서사의 신이적 성격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시인은 ‘신이’를 언급한 적이 없지만 ‘접촉’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역사 은유화’ 과정의 필수 개념인 초시간적 연관의 중요성을 감지한다. 풍류나 신명에 대한 언급은 그의 글에 많이 보이고, 이를 신이와 연관시켜 해석한다면 독자적인 연구 영역이 될 수도 있다.

Ⅲ. ‘대안사서(代案史書)’와 ‘대안미학(代案美學)’

서정주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비롯한 동양 고전에 대한 탐구를 6.25전쟁 직후의 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도했다고 고백한 바 있는데,²¹⁾ 이는 신라문화와 불교철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라고 보면 된다. 어려서 서당 공부를 했으므로 한문 리터러시는 기초가 잘 되어 있었고, 중앙불전 재학 중에 동서양 철학을 어느 정도 수용한 상태였다. 물질 너머의 비가시적 세계, ‘보아도 안 보이고, 들어도 안 들리지만, 보이는 것마다 붙어 떼어낼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접촉’은 『삼국유사』 공부를 통해 더욱 강열해진다.

이 저작은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피폐한 상황에 있던 서정주에게 중요한 미학적 대안을 제공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신성(신명)의 발현’이라는 ‘신이사관’과의 조우는 대안미학의 탐구와 내면화라는 자기극복의 과정으로 나아간다.²²⁾ 『삼국유사』의 신이한 성격은 일연의 일관된 역사관이었으며, 저자는 서문에서부터 이 점을 확실하게

21) 서정주, 「무등산 밑에서」, “또 나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속의 이야기들하고도 눈이 잘 맞아 그것들을 한문 재수 겸해서 이쁜 카드들에 한 이야기씩 한 이야기씩 토박토박 정성을 다해 가는 글씨로 옮겨 베끼고는 특별히 마음에 드는 구절엔 붉은빛의 관주를 쳐 갔다.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여 만들어 지니고 다닌 이 카드 다발이 뒤에 내가 하게 된 그 신라의 기초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때 내가 읽은 — 읽은 게 아니라 흡수한 공자의 『논어』와 『중용』 속에서 지금까지 제일 마음에 남아 있는 구절은 그 귀신 이야기 속에 나오는 ‘보아도 안 보이고, 들어도 안 들리지만, 보이는 것마다 붙어 떼낼 수 없는 것이다. 視之而弗見 聽之而弗聞 體物而不可遺’고 하신 부분이다.”, 『문학적 자서전』, 『미당 서정주 전집』 7권(자서전), 은행나무, 2016, 308쪽 참조.

22) 서정주가 6·25전쟁의 참화를 극복하는 방식은 전주와 광주 등지의 피난생활 기간 동안 만난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전의 지혜’였다. 그는 시 쓰기를 통해 삶에 담긴 어려움을 극복한 독특한 시인이었으며, 그런 점에서 문학치료적 의미에서 그의 시 쓰기의 효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선례이기도 하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형상화된 경우는 『서정주 시선』(1956)이고 ‘고전의 지혜’가 형상화되는 경우는 『신라초』(1961) 이후이다. 『질마재 신화』(1975)는 그 지혜를 독특한 방식으로 형상화시킨 ‘이야기 양식 도입을 통한 경험세계의 부활’이다.

밝히고 있다.

기이(紀異)권제일, 서왈(叙曰), 모름지기 옛 성인(聖人)은 예악(禮樂)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과(因果) 의로 가르침을 베풀었으므로 괴력난신(怪力亂神)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일어날 때는 부명(符命)에 응하고 도록(圖籙)을 받아 보통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다. 그런 뒤에 능히 큰 변화를 일으키고 큰 그릇을 잡아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중략)… 그러므로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이함에서 나왔다는 것이 무슨 괴이한 일이라. 이 기이(紀異)가 모든 편목(諸篇) 첫 머리에 실린 것은 그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²³⁾

‘신이’가 비범한 인물이나 사건을 뜻하고, 이 서사를 역사 서술의 근간으로 삼았다는 천명이라는 점에서 ‘예의(禮儀)’를 기준으로 삼았던 『삼국사기』의 사관과 차이점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삼국유사』는 정통 역사서라기보다 ‘대안사서(代案史書)’이다. 이야기의 서술 구조가 제왕, 승려, 민중의 순서로 짜여 있다. ‘신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현상으로서 건국신화에서 잠시 나왔다가 사라지지만 승려나 보통사람들에게도 발현하여 새로운 차원으로 진보해 간다고 기술한다. 그리고 신이를 추동시키는 핵심 동력이 불교라는 점을 일연은 강조한다. 이것이 『삼국유사』의 기본 성격이다.²⁴⁾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보통사람들의 신이 체험을 일별하여, 이 인물들이 1940년대 초반 서정주의 고향 서사에 등장하는 인물들 및 『질마재 신화』 속 인물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피는 일은 이 글의 주요한 연구 방법이다.²⁵⁾

23) 일연, 『삼국유사』(최남선 편), 서문문화사, 1987, 33쪽.

24) 이상의 내용은 조동일(2006)을 참조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조동일, 앞의 글, 16-17쪽 참조.

25) 이 글은 『삼국유사』와 『질마재 신화』와의 인물의 신이 성격을 비교하는 데 한정한다. 1940년대 초반의 고향 서사에 관한 논제는 다른 지면을 통해 수행할 예정이다.

하층민 민중의 성스러움이 발현되는 이야기는 『삼국유사』 편목의 중후 반부에 집중된다. 그것은 ‘신이’를 핵심 개념으로 파악한 이 대안사서가 ‘왕 → 승려 → 보통사람’의 순서로 사건을 배열했기 때문이다. 『질마재 신화』의 이야기 구조는 기본적으로 『삼국유사』의 ‘보통사람들의 신성 발현담’ 구조를 닮았다. 성과 속의 양 극단이 없어지는 불이(不二)의 세계, 시인 스스로 ‘현실의 밑바닥 참여’라고 부른 ‘화광동진(和光同塵)²⁶⁾의 세계와도 관련성이 깊다.

어스름 저녁, 산에서 수행하는 수도자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한다. 북쪽 판잣집에 사는 달달박박은 거절하지만 남쪽 돌집에 사는 노힐부득은 자비심으로 받아들인다. 여인은 알고 보니 해산 직전의 만삭 상태이다. 수행자에게 아기까지 받아달라고 부탁한다. 아기를 받고 나니 이번에는 아이 씻은 물에 목욕을 같이 하자고 한다. 그 물에 목욕을 하니 몸이 금빛으로 변한다. 여인은 자신이 관세음보살의 응신이라고 말하면서 대사로 하여금 대보리를 이루게 하려 왔다고 말하며 사라진다. 여인을 내쫓은 달달박박은 노힐부득이 파계했을 거라 예상하면서 그의 집으로 찾아온다. 금불로 변한 노힐부득을 보자 놀란다. 달달박박도 그 물에 몸을 담그자 무량수를 이루어 성인이 된다. 두 성인은 놀라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고는 서쪽 하늘로 날아간다(「남백월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

26) “그러나, 이런 신화적 헬레니즘만이 당시의 내 정신을 추진하고 있는 힘의 전부는 아니었다. 샤를르 보오들레르의 영향을 주로 해서 이루어졌던 ‘현실의 밑바닥 참여’의 의도가 또 있었다. 이것은 해인사에 오기 전에 이미 중앙불교전문학교의 동양철학 중심의 문과에서 배워 동감한 노자의 ‘화광동진(和光同塵)’의 의미와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보오들레르야말로 참 골(骨)로는 현실을 겪고 산 시인이다.’란 감탄을 늘 가지고 그의 시정신의 기미들에 친애감을 늘 느껴졌다. 특히 때 묻고 이지러지고 내던져진 육신들의 밑바닥에까지 자진(自進)해 놓여서 그렇게도 몸부림치는 그의 정신은 굉장하기도 책임적인 것으로 느껴졌다.” 서정주, 「고대 그리스적 육체성」, 『서정주 문학전집』 5권, 일지사, 1972, 266-267쪽. 보들레르와 노자에게 배웠던 청년 서정주의 이런 정신이 『삼국유사』의 ‘민중 신성 발현담’을 만나면서 『질마재 신화』로 옮겨가게 된다는 게 본고의 관점이다.

수행자 시험담론인 이 이야기는 보살이 언제든 민중의 모습으로 주변에 함께 있다는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재미있게 꾸민 것이다. 중생 구제의 소중한 가치를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벼 베는 연인, 개짐(생리대) 빼는 여인이 관세음보살임을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원효스님 이야기(「낙산 이대성 과음 정취, 조신」)도 마찬가지다. 청년 서정주의 ‘현실의 밑바닥 참여’와 같은 맥락이면서 『도덕경』의 ‘화광동진’과도 같다.²⁷⁾ 불교에 서는 보살이 아라한(아라한)의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자신의 재지(才智)를 숨겨 세속과 더불어 중생 속에 화동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한다.

열두 살이 되도록 말도 제대로 못한 채 기어 다니는 ‘뱀아기(蛇童, 蛇福)’가 알고 보니 원효의 전생 도반으로서 상(相)에 얽매이지 않는 성자였다는 이야기(「사복불언」)도 비슷하다. 사복은 과부 어머니(전생에 경전을 신고 다니던 소였다.)가 임종하자 생사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면서 땅속의 연화장 세계로 들어간다. 그리고는 땅이 닫혀버리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 이야기는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닌 이치(不二)를 전한다. 가장 극적인 민중 신성 발현담은 「육면비 염불서승」(육면이라는 여종이 부처가 되기를 염원하여 서쪽 하늘로 날아가다)이다.

경덕왕 때 강주(지금의 진주)의 신심 좋은 남자들이 미타사를 창건하고 만일(萬日) 동안 계를 하기로 했다(신자들에 의한 민간 결사. 우리나라에만 있음. 만일염불결사는 교단의 부패와 승려의 기강문란 등에 대한 자각과 반성으로 조직되어 평생 동안 신앙의 동지로 서원을 하고 가입하여 결성된 신앙공동체임. 필자 주). 아간 귀진이라는 사람의 집안에 육면(郁面)이라는 여자 노비가 있었는데 그 주인을 따라 절에 와서 염불을 하였다. 주인은 그가 일을 잘 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여 곡식 2석을 하루 저녁에 쟁게 하였는데 여종이 초저녁에 다 쟁고 절에 와서 염불하며 정

27) “도는 속이 비어 있어서 그것을 쓰되 늘 가득 차는 법이 없다. 깊은 샘과 같아서 만물의 뿌리인 듯하다. 날카로운 것을 무디게 만들고 어지럽게 얽힌 것을 풀어내며, 빛을 부드럽게 하여 속세의 티끌과 함께한다(필자 역). 道冲而用之, 或不盈. 淵兮似萬物之宗. 挫其銳, 解其紛, 和其光, 同其塵.” 노자, 『도덕경』, 4장. 김경수 역주, 『노자역주』, 2009, 67쪽 참조.

진했다. 뜰 좌우에 긴 말뚝을 세우고 두 손바닥을 뚫어 노끈으로 꿰어 말뚝에 매고 합장하여 좌우로 흔들며 스스로 격려하였다. 그때 공중에서 부르기를, ‘옥면낭자는 당에 들어가서 염불하라.’ 주위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여종에게 당에 들어가서 정진하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의 음악이 서쪽에서 들려오더니 여종이 몸을 솟구쳐 지붕을 뚫고 서쪽으로 날아갔다. 교외에 이르러 옥신을 버리고 부처의 몸으로 변하여 연대에 앉아 대광명을 발하면서 천천히 가니 음악소리가 공중에서 그치지 아니하였다.²⁸⁾

여자 노비 옥면의 재탄생 이야기는 보통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불성(佛性) 발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삼국사기』와 달리 이런 류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편집·배치하는 게 ‘대안사서’로서의 『삼국유사』이다. 서정주는 『삼국유사』를 읽으면서 신라정신의 탐구를 심화시켰으며 『신라초』(1961)와 『동천』(1968)을 거쳐 새로운 미학적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1970년대 민중 개념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대응하는 ‘미학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질마재 신화』는 신동엽의 장편 서사시 「금강」(1967), 김지하의 담시 「오적」(1970), 신경림의 서사시 『새재』(1979) 등과 같은 당대의 서사시가 체제 모순과 시대 부조리 문제를 다루는 방식과 확연히 다르다. 『질마재 신화』 속 인물들은 신이담으로서의 『삼국유사』 인물들과 유사한 ‘신라-질마재’ 종족들이고, 정치·역사적으로는 퇴행적 인물들이지만 종교·미학적으로는 역설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양가가치적이다.

『질마재 신화』는 표면상으로 보면 시인의 유년 시절을 중심으로 한 고향 이야기 구술이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삼국유사』의 핵심 개념인 신이담의 계승과 그 변용으로 볼 수 있다. 서정주는 ‘신화’를 “하늘 밑에서는 거의 없는 일”²⁹⁾이라는 ‘희귀한 사건’의 의미로 쓰고 있는데, 그 이면에

28) 최남선 편, 『삼국유사』, 217-218쪽 참조

29) “이것도 아마 이 하늘 밑에서는 거의 없는 일일 테니 불가불 할 수 없이 신화의 일종이겠습죠?”, 「눈들영감의 마른 명태」, 『미당 서정주 전집』 2권(시), 은행나

‘성속불이(聖俗不二)’의 ‘신이사관’이 일관되게 깔려 있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IV. 신이(神異)의 발현 양상

『질마재 신화』는 가난에 굴하지 않는 사람들의 건강한 활력에 주목하거나 밑바닥 삶을 성인의 경지로 역전시키는 전도적 상상력을 보여주는 데 주력한다. 인물, 사건, 배경 등이 대체적으로 이런 원리에 의해 선별되고 기술된다. 종교적으로 보면 미친한 하층민의 삶도 빛날 수 있다는 ‘중생 구제’의 불교철학이 녹아 있는 경우이고, 문화적으로 보면 『삼국유사』의 신이담을 승계한 ‘문화 원형의 재현’이며, 문학적으로 보면 ‘역설의 미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드는 스토리텔링이다.

신부는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로 겨우 귀밑머리만 풀리운 채 신랑하고 첫날밤을 아직 앉아 있었는데, 신랑이 그만 오줌이 급해져서 냉큼 일어나 달려가는 바람에 옷자락이 문돌찌귀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신랑은 생각이 또 급해서 제 신부가 음탕해서 그 새를 못 참아서 뒤에서 손으로 잡아다리는 거라고, 그렇게만 알곤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 버렸습니다. 문돌찌귀에 걸린 옷자락이 찢어진 채로 오줌 누곤 못 쓰겠다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십 년인가 오십 년이 지나간 뒤에 뜻밖에 판 불일이 생겨 이 신부네 집 옆을 지나가다가 그래도 잠시 궁금해서 신부 방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신부는 귀밑머리만 풀린 첫날밤 모양 그대로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가서 어루만지니 그때서야 매운재가 되어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초록 재와 다홍 재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 「신부(新婦) 전문³⁰⁾」

무, 2015, 34쪽.

첫날밤에 버림받은 신부 이야기이다. 시집 제일 앞에 수록되어 의도적 배치라고 볼 수 있다. 질마재 마을 고유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만주 체류 중에 동포로부터 전해들은 조선의 이야기이다.³¹⁾ 당대 조선 땅에서 널리 구연되던 전설이라는 뜻이다. 산문은 난삽하고 미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이야기 재료에 불과하지만 시는 빼어난 이야기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다. 첫날밤 신부의 가슴 설레는 기대감은 어처구니 없게 무너진다. 그리스 비극처럼 ‘급전(急轉)’의 구조를 가진다. 그 상태로

30) 서정주, 『미당 서정주 전집』 2권(시), 은행나무, 2015, 27쪽.

31) 1940년 10월 29일 「만주일기」를 참조해보자. “1. 첫날밤에 신랑이 번소엘 가는데 함 장식에 도포 자락이 걸린 걸 신부의 경솔과 음탕인 줄 오해하고 버렸더라. 10년 후에 돌아와 보니 신부는 거기 10년의 첫날밤을 여전히 앓았더라. 오해가 풀렸거나 말았거나 손목을 잡아 보니 신부는 벌써 새카만 한 줌의 재였다. …… 신랑은 출세를 할까. 그러나 신랑은 벌써 옷을 수가 없는 것이다. 2. 비밀히 처는 바람벽을 뜯어 먹고 있었다. 불쌍하였다. 그러나 처는 벌써 중인衆人의 제물이었다. 나는 재상宰相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벌써 옷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하략). 이정규 군의 아버지는 실로 이상한 이야기를 잘한다. 조선 사람은 실로 이상한 이야기를 잘하는 것인가. 회령 수달피의 아버지가 청태조의 아버지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묘한 광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무얼까.” 서정주, 「만주일기」, 『미당 서정주 전집』 8권(산문), 은행나무, 2017, 74-75쪽. 이 산문의 내용은 「정조」(『여월』, 1959.1)라는 시(신년 권두시) 양식으로 재구성되어 발표되고, 『현대문학』 1972년 3월호에 「신부」로 다시 개작된다. 「정조」와 「신부」는 모티프만 다를 뿐 작품 수준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신부」를 산문으로 다룬 자료로는 『시문학원론』(1969) 속에 수록된 「정조의 시」를 참조할 만하다. 이는 시 텍스트의 내용과 흡사하다. “이야기를 하나 할까. 옛날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하는데, 첫날밤에 신랑이 바쁘게 뒷간엘 가다가 옷자락이 돌쩌귀에 걸렸다고 한다. 그것을 신랑은 신부가 음탕하여 뒤에서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것으로 오해하여 그길로 나가서는 30년인가 40년인가를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긴 세월이 지나간 어느 날 신랑이 우연히 이 집을 지나가게 되어, 그 신방 문을 열어보니 신부는 녹의홍상에 첫날밤 그대로 앉아 있어 손을 들어 매만지니 비로소 폭삭 한 줌의 재가 되어 버리더라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신부의 감정이 바로 우리 과거 동양 사람의 혼한 정조 그것이다. 정조니, 열녀니, 선비의 지조니 하면 말이 쉽지 사실상 그 심도를 실제로 측정하는 것은, 우리 같은 변화하는 감정 세계에서만 길든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당 서정주 전집』 12권(시론), 2017, 141쪽. 「신부」의 정작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과제이다. 「만주일기」(1940), 「정조」(1959), 「정조의 시」(1969), 「신부」(1972)는 하나의 이야기가 문학적으로 형상화되는 과정의 발전상을 잘 보여준다.

세월이 오래 흐르고, 버려진 여인은 버린 남자에 의해 스킨십을 받는다. 다시 급전이 일어난다. 곳곳하게 앉아 있던 그녀는 재가 되어 무너진다. 여기에서, 한 차원 더 높은 놀라운 급전이 마련된다. 이야기꾼은 무너지는 ‘재-신부’에게 초록과 다홍색을 빼앗지 않는다.

첫날밤의 신부가 초록재와 다홍재로 무너지는 경지는 인간으로서의 설움과 증오를 초월한 해탈의 상징이자 ‘심미적 도약’을 암시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보기에 따라서는 여성 수난에 대한 보고일 수도 있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여성 미덕에 대한 찬양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시집 전체의 구조로 보면 버려진 사람도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조용히 속삭이는 역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지독스럽게도 운 없는 여인이 신부의 상징인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의 색깔을 잃지 않은 채 재로 변한다는 진술은 여자 노비 육면이 지붕을 뚫고 솟아올라 부처의 몸이 되는 것만큼이나 극적인 변화이다. 아무리 미천한 신분이라도 변치 않는 불성(佛性)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신부의 초록색과 다홍색이 재가 되어서까지 간직된다는 시적 상상력은 신부의 아름다움과 고결함을 부각시키는 기능만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 내면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 신성 발현의 문학적 재현 방식이다. 첫 마음, 본성, 본래의 마음자리로 바꾸어도 똑같다. 「신부」를 『삼국유사』식 문법으로 읽으면 이렇게도 독해가 가능하다.

『질마재 신화』 33편의 시 속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즐비하다. 한 달에 보름은 바람피우는 과부 알뿔떡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만, 바람을 피우지 않는 때에는 맛난 떡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도덕적 비난과 심미적 감동의 양면성을 함께 가지는 여인. 그녀는 혼자 사는 과부여서 불행하고 쓸쓸하지만 시인의 시선은 양 극단을 나란히 보여줌으로써 편벽된 이해를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삶의 모순되는 양면성을 함께 보여주는 데 작동하는 원리는 역설이다.

이도 다 빠져 잇몸밖에 남지 않은 깡마른 여든 살짜리 ‘눈들염감’이 마른 명태 한 마리를 통째로 우물거려 먹는 장면을 묘사하는 「눈들염감의

마른명태」는 노인의 건강한 생명력에 주목하는 경우이다. 뼈다귀밖에 남지 않는 노인네와 그가 ‘자시는’ 딱딱한 마른 명태의 병치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드는 장치이다. 해학이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지배하지만 다 죽어가는 노인네의 불가사의한 생명력을 주목한다는 점에서 보면 역설의 원리도 강하게 작동한다.

육재가 여인 ‘소자 이생원네 마누라님’도 알고 보면 오줌 기운 때문에 무를 크게 키우는 건강한 여인이다. 시인은 『삼국유사』 속 지도로대왕이 배필을 구할 때의 이야기를 슬쩍 빌려와 질마재 마을의 가난한 여인을 신라 왕후의 반열에 올려놓는다. 민가의 속된 여인은 건강한 생명력 하나로 신라 왕후와 동일시된다. 성속불이 문법의 문학적 형상화가 천의무봉 솜씨로 구현된다.

소자小者 이 생원네 무우밭은요. 질마재 마을에서도 제일로 무성하고 밀둥거리가 굽다고 소문이 났었는데요. 그건 이 소자 이 생원네 집 식구들 가운데서도 이 집 마누라님의 오줌 기운이 아주 센 때문이라고 모두들 말했습니다.

옛날에 신라 적에 지도로대왕은 연장이 너무 커서 짝이 없다가 겨울 늙은 나무 밑에 장고만 한 통을 눈 색시를 만나서 같이 살았는데, 여기 이 마누라님의 오줌 속에도 장고만큼 무우밭까지 고무시키는 무슨 그런 신바람도 있었는지 모르지. 마을의 아이들이 길을 빨리 가려고 이 댁 무우밭을 밟아 질러가다가 이 댁 마누라님한테 들키는 때는 그 오줌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아이들도 할 수 없이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놈 게 있거라. 저놈을 사타구니에 집어넣고 더운 오줌을 대가리에다 몽땅 깔기어 놀라!” 그러면 아이들은 핏 새끼들같이 풍기어 달아나면서 그 오줌의 힘이 얼마나 더울까를 푹푹히 잘 알밖에 없었습니다.

— 「소자 이 생원네 마누라님의 오줌 기운」 전문³²⁾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이런 식으로 형상화된다. 『질마재 신화』가 가지는

32) 서정주, 『미당 서정주 전집』 2권(시), 은행나무, 2015, 30쪽.

문학사적 가치가 있다면 ‘개인 주체의 신성성 발현’이라는 『삼국유사』 핵심 개념을 현대에 승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인들의 힘든 가사노동을 암시하는 외할머니네 뒤편 툇마루의 ‘손때’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오래 문질렀는지 사람 얼굴도 비치는 ‘때거울 툇마루’로 바뀐다. 때가 거울이 되는 이런 구조가 바로 신명 발현의 원리에서 유래한다고 본다. 마을 제일의 소리꾼 ‘상가수’는 배설물조차 성스럽게 만드는 전도적 상상력의 압권을 보여준다.

질마재 상가수의 노랫소리는 답답하면 열두 발 상무를 짓고, 따분하면 어깨에 고갈 쓴 증을 세우고, 또 상여면 상여머리에 피약별 같은 낯쇠 요령 흔들며, 이승과 저승에 뺨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를 안 하는 어느 아침에 보니까 상가수는 뒷간 풍오춤 향아리에서 풍오춤 거름을 옮겨 내고 있었는데요. 왜, 거, 있지 않아, 하늘의 별과 달도 언제나 잘 비치는 우리네 풍오춤 향아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붕도 앞세 작파해 버린 우리네 그 참 재미있는 풍오춤 향아리, 거길 명경明鏡으로 해 망건 밑에 염발질을 열심히 하고 서 있었습니까. 망건 밑으로 흘러내린 머리털들을 망건 속으로 보기 좋게 밀어 넣어 올리는 쇠뿔 염발질을 점잔하게 하고 있어요.

명경도 이만큼은 특별하고 기름져서 이승 저승에 두루 무성하던 그 노랫소리는 나온 것 아닐까요?

— 「상가수(上歌手)의 소리」 전문³³⁾

풍오춤 배설물이 거울로 바뀌는 순간은 여자 노비 육면이 부처님 몸으로 다시 탄생하는 방식과 구조적으로 같다. 특별하고 기름진 풍오춤거울에 몸단장을 하는 상가수. 그 기운을 받아서 이승과 저승을 두루 감동시키는 노래가 나온다고 시인은 너스레를 떠다. 인간의 배설물이 하늘의 달과 별을 비치는 명경이 되는 질마재 마을(「소망(풍간)」). 성속불이의 경지가 궁벽한 촌마을 일상 삶 속에 재현된다. 미당의 산문 자료를 보면 상가

33) 서정주, 『미당 서정주 전집』 2권(시), 은행나무, 2015, 29쪽.

수는 미당 집안의 머슴 신분이지만 천지를 감동시키는 일류 예술가이기도 하다.³⁴⁾ 배설물과 명경, 머슴과 일류 예술가의 양 극단이 무화되는 불이(不二)의 경지가 『질마재 신화』의 세계이다. 성숙불이의 역설의 세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작품은 「소×한 놈」이다.

원 마을에서도 품행 방정기로 으뜸가는 총각놈이었는데, 머리술도 제일 짙고, 두 개 앞니빨도 사람 좋게 큼직하고, 씨름도 할라면이사 언제나 상씨름밖에는 못하던 아주 썩 좋은 놈이었는데, 거짓말도 예누리도 영할 줄 모르는 슷하디스한 놈이었는데, ‘소×한 놈’이라는 소문이 나더니만 밤사이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다. 즈이 집 그 암소의 두 뿔 사이에 봄진 달래 꽃다발을 매어 달고 다니더니, 어느 밤 무슨 어둠발엔지 그 암소하고 돌이서 그만 영영 사라져 버렸다. “사경(四更)이면 우리 소 누깁엔 참이쁜 눈물이 고인다”고 누구보고 언젠가 그러더라나. 아마 틀림없는 성인(聖人) 녀석이었을 거야. 그 발자취에서도 소풍 향내쯤 살풋이 나는 틀림없는 틀림없는 성인 녀석이었을 거야.

—「소×한 놈」 전문³⁵⁾

마을의 품행 방정한 총각에게 수간(獸姦) 소문이 돈다. 짐승과 벌이는 변태 성행위의 주인공으로 지목되자 그는 마을에서 사라진다.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마을의 앓은뱅이 재곤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신선 재곤이」), 이 품행 방정한 총각이 자

34) “(…) 또 장구 잘 치고 노랫소리 좋은 ‘상곤이’ 같은 사람을 좋아했으니 말이다. 이 상곤이는 매우 가난해서 한때는 우리 집에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주머니 속에는 망건 밑으로 흐트러져 내리는 머리털을 땀시 있게 망건 속으로 가지런히 집어넣는 데 쓰는 쇠뿔제의 예쁜 엽발이라는 것이 하나 늘 들어 있어, 이 걸 그는 자주 애용하고 있었다. 아침에 들발에 똥오줌을 피낼 때에도 손거울이 없는 그는 얼굴을 소망이라 부르는 그 똥오줌통에 비추어보며 연신 엽발질을 하고 있었다. 그래 나는 아주 신기하게 그의 그런 짓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인데, 이런 영향들이 어린 때에 은연히 쌓여 내가 뒷날 심미가라는 것이 되게 한 것인 듯도 하다.” 서정주, 「내 문학의 온상들」, 『미당 서정주 전집』 11권(산문), 은행나무, 2017, 39쪽 참조.

35) 서정주, 『미당 서정주 전집』 2권(시), 은행나무, 2015, 71쪽.

기 암소와 함께 사라진 이유는 밝혀지지 않는다. 다만 소문의 형식으로, 누군가의 입을 빌려서, 슷하다스듯한 총각을 리비도 상태의 물지각한 ‘짐승-인간’으로 만든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야기꾼-시인의 논평이다. 자기 집 암소를 너무나 사랑하는 총각. 얼마나 소를 사랑하면 그 똥에서 향내를 다 맡을까. 이야기꾼도 낫잡아보아 하대하는 ‘녀석’인데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성인(聖人)’이다. ‘성인 녀석’은 ‘소똥 향내’와 짝을 이루면서 상반되는 세계를 합치시키는 모순형용의 역설을 보여준다. 성과 속이 다르지 않고 지옥이 극락이며 생사가 곧 열반이라는 불이의 세계관과 똑같은 구조이다.

V. 맺음말

이 글은 서정주의 『질마재 신화』가 『삼국유사』의 ‘신이(神異)’ 성격을 원리로 하여 창작되었음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신이는 ‘신기하고 괴이한 이야기’라는 의미 외에 ‘평범한 사람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신성(신명) 발현’의 뜻도 있음을 주목하고 두 텍스트에 나타나는 사례들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신이는 성과 속, 생사와 열반 등과 같은 양 극단의 경계가 무너지는 불교의 불이론(不二論) 경지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미당의 젊은 시절의 주요 경험이었던 ‘현실 밑바닥 참여’나 노자로부터 배운 ‘화광동진’과도 유사함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이’의 문학적 변용을 ‘불이(不二)’와 ‘역설(paradox)’로 정리하였다.

1940년대 초반의 고향 관련 산문들을 ‘고향 서사’라 명명하였으며, 이 고향 사랑 의식이 후일 『질마재 신화』의 기원이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1940년대 초반 서정주의 고향 서사에 대한 연구는 『질마재 신화』의 발생론적 서사라는 점에서 천착이 필요한 과제임을 주목했다.

『질마재 신화』의 인물들은 대부분 가난하지만 가난을 전경화하거나 체제모순에 대한 고발 같은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으로 형상화되지 않는다. 질마재의 인물들은 미천한 사람도 성스럽다는, 『삼국유사』 속 인물들과 같은 ‘신라-질마재’ 종족으로 형상화된다. 종교적으로 보면 미천한 하층민의 삶도 빛날 수 있다는 ‘중생 구제’의 불교철학이 녹아 있는 경우이고, 문화적으로 보면 『삼국유사』의 신이담을 승계한 ‘문화 원형의 재현’이며, 문학적으로 보면 ‘역설의 미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드는 스토리텔링이다.

첫날밤에 소박맞은 신부가 수십 년간 정절을 지키다 마지막 순간에 초록재와 다홍재로 내려앉은 이야기(「신부(新婦)」)는 인간 내면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 신성 발현의 문학적 재현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도덕적 비난과 심미적 감동의 양면성을 함께 가지는 여인 ‘알뫼떡’(「알뫼떡 개피떡」), 불가사의한 식탐을 가진 ‘눈들영감’(「눈들영감의 마른 명태」), 신라 왕후와 동급인 옥쟁이 여인 ‘소자 이생원네 마누라님’(「소자 이생원네 마누라님의 오줌 기운」), 손때 묻은 마루를 ‘떼거울 뒷마루’로 바꾸는 여인들(「외할머니의 뒷안 뒷마루」), 배설물조차 신성한 거울로 만드는 성속불이의 ‘상가수’(「상가수上歌手의 소리」), 자기 집 암소를 사랑하는 역설의 ‘성인 녀석’(「소×한 놈」) 등은 『삼국유사』 속 신명 발현의 인물들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이 대안사서(代案史書) 속에는 미천한 계집종(옥면), 하층민 신기료 장수(광덕), 화전민(엄장) 등이 불성(佛性)을 발현하여 보살이 되는 세상이 펼쳐진다. 민중민족주의 태동으로 평가할 만한 이런 역사관이 『질마재 신화』에도 적용된다. 그 주요한 특성이 바로 ‘신이’의 문학적 변용인 ‘불이’와 ‘역설’이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지하, 「오적」, 『사상계』, 1970.5.
- 노자, 『도덕경』 4장, 김경수 역주, 『노자역주』, 2009, 67쪽.
- 서정주, 「나의 방랑기」, 『인문평론』, 1940.3.
- , 「속·나의 방랑기」, 『인문평론』, 1940.4.
- , 「문들레꽃」, 『삼천리』, 1941.4.
- , 「살구꽃 필 때」, 『문장』, 1941.4.
- , 「간조」, 『춘추』, 1941.7.
- , 「질마재 근동야화」, 매일신보, 1942.5.13.~5.21.
- , 「거북이」, 『춘추』, 1942.6.
- , 「여름밤」, 「감꽃」, 『조광』, 1942.7.
- , 「향토산화」, 『신시대』, 1942.7.
- , 「고향이야기」, 『신시대』, 1942.8.
- , 「귀축도」, 『춘추』, 1943.10.
- , 「꽃」, 『민심』, 1945.11.
- , 「정조」, 『여원』, 1959.1.
- , 「내 시정신의 현황」, 『문학춘추』, 1964.7.
- , 「신부」, 『현대문학』, 1972.3.
- , 「흑석동 시대」, 『서정주 문학전집』 3권, 일지사, 1972, 228쪽.
- , 「고대 그리스적 육체성」, 『서정주 문학전집』 5권, 일지사, 1972, 266-267쪽.
- , 「내가 아는 영원성」, 『현대시학』, 1974.10.
- , 「거북이에게」, 『미당 서정주 전집』 1권(시), 은행나무, 2015, 72-73쪽.
- , 「꽃」, 『미당 서정주 전집』 1권(시), 은행나무, 2015, 75쪽.
- , 「신부」, 『미당 서정주 전집』 2권(시), 은행나무, 2015, 27쪽.
- , 「상기수의 소리」, 『미당 서정주 전집』 2권(시), 은행나무, 2015, 29쪽.
- , 「소자 이생원네 마누라님의 오줌기운」, 『미당 서정주 전집』 2권(시), 은행나무, 2015, 30쪽.
- , 「눈들영감의 마른 명태」, 『미당 서정주 전집』 2권(시), 은행나무, 2015, 34쪽.

- , 「소×한 늬», 『미당 서정주 전집』 2권(시), 은행나무, 2015, 71쪽.
- , 『문학적 자서전』, 『미당 서정주 전집』 7권(자서전), 은행나무, 2016, 308쪽.
- , 「만주일기」, 『미당 서정주 전집』 8권(산문), 은행나무, 2017, 74-75쪽.
- , 『미당 서정주 전집』 8권(산문), 은행나무, 2017, 15-116쪽.
- , 「내 문학의 온상들」, 『미당 서정주 전집』 11권(산문), 은행나무, 2017, 39쪽.
- , 「나의 문학인생 7장」, 『미당 서정주 전집』 11권(산문), 은행나무, 2017, 77-78쪽.
- , 「정조의 시」, 『미당 서정주 전집』 12권(시론), 2017, 141쪽.
- 신경림, 『새재』, 창작과비평사, 1979.
- 신동엽, 「금강」, 『3인 시집』(『한국 현대 신작 전집』 5권), 을유문화사, 1967.
- 일 연, 『삼국유사』(최남선 편), 서문문화사, 1987, 33쪽. 217-218쪽.

2. 단행본 및 논문

- 김봉재, 「『질마재 신화』에 나타난 탈근대적 성격」, 『한국문학연구』 52집, 2016, 41-79쪽.
- 김윤식, 「역사의 예술화」, 『현대문학』, 1963.10, 182-192쪽.
- 박옥순, 「서정주의 초기 기행시와 ‘신라-질마재’의 발견」, 『인문과학연구』 52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49-80쪽.
- 유종호, 「소리 지향과 산문 지향」, 『문학의 즐거움』(유종호 전집5), 민음사, 1995, 34쪽.
- , 「서라벌과 질마재 사이」, 『서정적 진실을 찾아서』, 민음사, 2001, 166쪽.
- 윤재용, 「『질마재 신화』에 나타나는 ‘액션’ 미학」, 『한국어문학연구회』, 2013, 378-384쪽.
- 조동일, 「『삼국유사』의 기본 특징 비교 고찰」, 『일연선사와 삼국유사(일연학연구원 국제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06, 13-44쪽.
- 조은정, 「『삼국유사』의 시적 수용과 ‘미당유사’의 창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71쪽.
- 최현식, 「질마재의 역사성과 장소성」, 『한국시학연구』 43호, 2015, 139-175쪽.

- **주제어** : 서정주, 질마재 신화, 삼국유사, 신이(神異), 신이의 문학적 변용

논문접수일	2020년 4월 29일
심사완료일	2020년 5월 6일
게재확정일	2020년 5월 8일

- Abstract

The Influence of 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 on Seo Jeong-ju's Myth of Jilmajae

: Focusing on The Literary Transformation Problem of The Concept
of Divinity

Yun, Jae-Woong
(Dongguk University)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clarify that the Seo jeong-ju's Myth of Jilmajae was created on the basis of the personality of the Divinity of 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三國遺事). Divinity noted that besides the meaning of 'strange and bizarre story', there is also the meaning of 'divine manifestation that is latent in the inside of ordinary people', and that was conducted by comparing the two cases appear in the text.

In addition, Divinity is not only similar to the Buddhist theory of Non-duality, which breaks down the boundaries between two extremes, such as sacred and secular, hell and nirvana, but also to the similarity with the 'real bottom participation', which was the main experience of the youth of Midang, and the 'Soften Glare And Be One With Dust' learned from Lao-tzu. In this process, the literary transformation of 'Divinity' is summed up as 'Non-duality(不二)' and 'Paradox'.

Most of the characters in Myth of Jilmajae are poor, but they are not created in ideological aspects such as foregrounding poverty or accusations of regime contradiction. The characters of Myth of JilMajae are created in the

“Silla-Jilmajae” race, the same as the characters in 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三國遺事). From a religious point of view, this text is a case in which the Buddhist philosophy of ‘Relief of Beings’ is said to be able to shine even the lives of low-class people. From a cultural point of view, this text is a ‘representation of the cultural prototype’, which inherits the non-duality story of 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三國遺事). From a literary point of view, this text is a storytelling that enriches the meaning of life through ‘the aesthetics of paradox’.

- **Key words** : Seo Jeong-ju, Myth of Jilmajae, 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 Divinity, Literary transformation of Divinity